

투석전 산혈증을 동반한 혈액투석 환자에서 경구 중탄산염 투여가 투석간 체중 증가, 투석전 및 투석중 혈압, 투석중 저혈압, 투석전 혈청 나트륨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차연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이정아 · 송영수 · 김수진 · 오지은 · 김은정 · 김성균
박태진 · 이영기 · 서장원 · 윤종우 · 구자룡 · 김형직 · 노정우

The Effect of Oral Bicarbonate Administration on Interdialytic Weight Gain, Blood Pressure, intradialytic hypotension and Serum Na Concentration in Acidemic Hemodialysis Patients; Cross Over Study

Jeong-A Lee, Young-Soo Song, Soo-Jin Kim, Ji Eun Oh, Eun-Jeong Kim, Seung-Kyun Kim, Tae-Jin Park
Young-Ki Lee, Jang-Won Seo, Jong-Woo Yoon, Ja-Ryong Koo, Hyeong-Jik Kim, Jeong-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서론 : 만성 대사성 산증은 단백질의 이화를 촉진시키고 영양 상태를 악화시키고 신성 골이양증의 악화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DOQI 지침에 의하면, 혈액투석 환자에서 투석전 혈청 중탄산염의 농도를 22 Mm/L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투석액의 중탄산염의 농도를 조절하거나, 경구 중탄산염을 투여한다. 그러나 경구 중탄산염 나트륨은 갈증의 증가, 투석간 체중 증가, 고혈압의 악화, 단위시간당 초여과량의 증가를 유발하여 투석 중 저혈압이 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의 사용을 어렵게 한다. 이에 저자는 만성 대사성 산증을 동반한 혈액투석 환자에서 경구 중탄산염 나트륨의 투여시 그 부작용을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에서 중탄산염 투여 2개월 전부터 혈청 중탄산염의 농도가 20 mmol/L 미만인 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탄산염 나트륨 투여 전후 투석간 체중 증가, 투석전 및 투석 후 혈압, 투석 중 저혈압 발생 빈도, 투석전 혈청 나트륨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결과 : 대상환자에서 경구 중탄산염 투여 전후 투석간 체중 증가, 투석전 및 투석 후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05$). 투석중 저혈압의 빈도도 투여 전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05$). 그러나 약제 투여 후 83.3%의 환자에서 갈증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 만성 산혈증 혈액투석 환자에서 경구 중탄산염 나트륨은 투석간 체중 증가와 혈압의 유의한 변화, 투석 중 저혈압의 빈도 증가 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나 대다수의 환자에서 갈증을 유발하였다. 향후 더 많은 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탄산염 나트륨의 유용성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